

미쓰노도(다이코도·지키도·조교도)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는 이 사원의 풍요로운 역사의 상징, 종교적 수행의 장, 그리고 천 년이 넘도록 이곳을 사용해온 각 시대 승려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코도(大講堂)는 미쓰노도 북쪽 끝에 있으며, 흰 자갈이 깔린 넓은 중정을 끼고 조교도(常行堂)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2층 건물인 지키도(食堂)는 미쓰노도의 서쪽 끝을 구성하는 긴 회랑처럼 보입니다.

10 세기에서 15 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사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이코도는 강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행의 장입니다. 천태종(天臺宗) 사원에 공통되는 건축양식으로서 건물 중앙의 내진(內陣)(본존을 안치하는 신성한 장소)을 봉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당의 본존은 역사적인 석가모니불로서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오른쪽)과 진리와 수행의 덕의 보살인 보현보살(왼쪽)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사천왕이 지키는, 금빛으로 빛나는 삼존상이 중정 너머로 조교도 앞의 무대를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그 무대에서 무악이 봉납되고 있습니다.

조교도(常行堂)는 종교적인 수행의 장입니다. 승려들은 경을 외면서 불당 중앙의 큰 아미타불 주위를 천천히 걷는 상행삼매라는 수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수행은 식사와 휴식을 위한 짧은 시간만을 제외하고 90 일 동안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행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교지 절의 승려가 상행삼매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키도(食堂)는 역사적으로는 승려가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174 년에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의 기원에 따라 창건되었으나 겐토쿠 3년(1331)에 일어난 대화재 이후 1963 년까지 미완성이었습니다. 현재 1층은 주로 방문자가 공덕을 쌓기 위해 하는 사경(경전을 베끼는 것)의 장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키도의 2층에서는 엔교지 절의 길고 풍요로운 역사에서 빛을 발한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정 주위의 건물 및 이 건물들의 ㄷ자 배치가 돋보이기 때문에 미쓰노도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촬영에 선호되는 장소입니다. 미쓰노도는 몇몇 인기 있는 시대극에 등장하며, 톰 크루즈와 와타나베 겐이 주연한 대히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2003)의 촬영지로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쓰노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